빈틈보인 복지시설 관리

일부 교계복지관 공금유용사건 '물의'
'교구본사별 법인운영' 등 대책마련 시급

서울 자양복지관에 이어 부산 공창복지관에서 공금유용사건이 잇따르는 등 종단 복지시설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조계종 복지재단의 경우 현 관리체계가 현실성이 없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운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최근 관장의 공금유용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골치를 앓고 있는 자양복지관의 경우 복지재단은 비리를 저지른 공영애 관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그쳤을 뿐 문제가 발생한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복지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회계책임자가 운영비 8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 몇몇 복지관에서도 비리의혹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복지재단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복지재단의 관리소홀을 탓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복지재단은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50여개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감사는 기껏해야 1년에 한번이고 그것도 30여개 복지관에 반나절 감사에 지나지 않는 형편. 5명에 불과한 복지재단의 인력부족도 실질적인 감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재단이 시설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어 복지재단은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제8교구 복지종사자연수대회에서는 이같은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일선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구본사별 복지재단 운영, 중앙집중식, 종단 등록제 등의 운영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운영은 복지재단 관계자나 시설들 관계자들 모두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꼽고 있는 제도. 말사와 교구본사가 예산을 조달하는 형태의 이 제도는 적절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따라서 활동영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종단차원의 관리에 따른 행정부담이 따른다.

중앙집중식은 종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 그러나 각 시설들에 1년에 최소 3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교계가 복지진흥에 관심을 갖고 후원금과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이나 기독교 선명회재단, 가톨릭 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의 경우 이같은 운영방식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종단등록제도는 복지관이 종단의 시설로 등록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단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단예산지원이 없어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도 없이 간섭만 받게 돼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지방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재단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방의 경우 복지재단과 업무연계는 물론 도움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본사별 복지법인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불교계 복지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은평노인복지관 2일 개관

취업알선센터 · 노인대학등 상담 폭주

지난 2일 개관한 은평노인복지관(관장 성운스님)이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노인들에게서도 상담이 폭주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관 후 일주일동안 들어온 상담 건수만 해도 벌써 4백여건. 복지관 노인대학에는 1백50여명이 접수했으며, 물리치료 및 주간보호에도 1백여명과 40여명이 각각 접수했다. 그러나보니 오후 5시까지인 상담시간이 저녁 10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노인들이 이곳의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2일부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노인주간보호소(중풍, 치매) 치료실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은평복지관은 반응이 좋은만큼 최상의 서비스로 노인들이 '고향' 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은평노인복지관은 노인전문 재활용품도 무료로 대여해주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385-1351 <관련기사 본지 제228호 14면 참조>

한명우 기자

◇2일 법요식과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 개관식에는 은평구사암연 스님들과 이배영 은평구청장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관장 성운스님이 개관인사를 하고있다.

'좋은이웃 111' 캠페인
강북장애인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혜창)은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보람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좋은 이웃 111' 캠페인을 벌인다. <관련 인터뷰 4면>

장애인들과 일대일 결연후원을 통해 이들을 돕는 방식의 이번 캠페인은 9월말까지 전개되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사찰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후원금은 생계지원과 의료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02)989-4214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단군상 훼손 엄중수사"

종교편향대책위(공동위원장 현진, 원혜스님)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대행 배영진, 이상번)는 7일 여주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단군상훼손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탄, 사건관련자의 색출과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월주 전 조계종총무원장과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작곡가 김영동씨 등 종교계 문화계 인사 2백여명으로 구성된 민족정신회복시민운동연합(임시대표 김지하)도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정신의 위기를 각성하고 왜곡된 상고사를 바로잡는 데 합심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6면>

정성운 기자

정화측 통도사 말사 주지 임명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는 6일 정변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관할 말사인 울산 문수암과 해남사, 창녕 관룡사의 주지를 명도각스님 등으로 교체키로 했다. 산중총회는 월하스님을 비롯 17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해 종단사태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종헌종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대불청 회장 18일 선거

대한불교청년회는 4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이상대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사표를 수리하고, 7월1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중앙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불청은 배영진, 이상번 전 중앙회장을 공동직무대행체제로 추대해 사무국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수습키로 했다. 또 유석근 충남지부 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 8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도필선 기자

아파트공사로 요사채 균열

구미 원각사, 住公에 피해보상 요구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요사채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해 스님과 신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 말사 구미 원각사 주지 대혜스님과 신도20여명은 5일과 6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김방수)를 방문해 "주공아파트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라"며 항의했다.

원각사측은 이날 "전통사찰에서 20m도 벗어나지 않은곳에 15층 고층아파트 건설허가가 난 경위를 밝히고 사찰환경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주공측에 제출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2백여억원의 예산으로 97년 12월 착공해 2000년 5월 준공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개동 3백62세대로 원각사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원각사 요사채는 방바닥과 벽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있으며 방바닥이 융기해 사람이 거주할수 없는 상태다. 주공측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요사채 균열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밝혀졌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5개동으로 건설되려다 1개동이 사찰 정면에 들어서도록 설계가 되어 물의를 빚자 착공직전에 설계에서 삭제되는등 사찰측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설계변경직후 공사에 대해 무지한 스님과 신도들을 상대로 '공사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받아내는등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석남사앞 위락시설 반대 서명

40여 환경 · 시민단체 '대책위' 결성

일주문앞 위락시설과 공장 건립등의 공사로 수행환경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있는 울주 석남사(주지 영운)와 울산 청룡암(주지 종현)이 수행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에 나섰다. 위락시설 건축 반대를 위한 철야정진(8일 현재 13일째)을 하고 있는 석남사는 7일 울산 환경연합, 태화강 보존회 등 환경단체를 비롯 회계사, 변호사 등 직장 직능모임 40여 단체 100여명과 함께 '가지산 환경보존대책위원회(회장 조홍식)를 결성했다. 가지산환경대책위는 석남사 수행환경 훼손 문제를 범시민적인 차원의 환경과괴 문제로 인식해 울주군에 가지산 자연공원 계획법안 전면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229호 23면 기사 참조>

또한 울주군의 허가과정, 울주군청의 대토합의 일방적 파기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석남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건축주가 내놓은 공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해 놓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불자들의 뜻을 결집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7일 현재 2만5천여명의 저지동참 서명을 받았다.

한마음선원등 전국 비구·비구니사암과 강원, 선원, 재가단체와 시민들까지 가세한 동참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울산 청룡암은 비로 연기되었던 공장건립 반대집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기로 하는 한편, 건축주가 공사차량 통행용 도로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시도하자 기도도량 보호를 위한 '땅 한평 사기' 불사를 벌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통일 한마당 연다

불추위, 31일 조계사서 … 전국 순례단도 구성

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지선·이하 불추위)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통일한마당을 31일 오후 7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2일 제3차 확대집행회의를 연 불추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99 민족화합 통일정토 전국순례단을 구성키로 하고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을 출발하여 광주 청주 춘천등 전국 도청소재지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또 8·15 통일기원 남북동시법회를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공동발원문이 낭독된다.

김원우 기자

어린이법회 지도자 경력 1년이하 42%
조계종포교원 실태조사

사찰 어린이법회에서 활동중인 지도교사 가운데 41.7%가 지도경력 1년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지도교사의 변동이 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도교사의 54.5%를 차지하는 20대 초중반의 불자들이 청년기의 일시적 신행활동으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맡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등에서 실시한 지도교사 연수회 참가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다.

이번조사에 응답한 지도교사 가운데 83.6%가 여성이고, 불교경력 10년이하(65.1%), 지도교사 시작시 불교경력 4년이하(47.3%)인 지도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교육과 신행활동을 토대로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는 교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 준비시간에 대해서도 42.4%가 1~2시간, 32.1%가 1시간이하라고 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교사의 대부분이 무급(74.1%)이며 유급의 경우도 5만원~10만원이하의 교통비만을 받는 자원활동가인 것으로 조사돼, 사찰의 어린이법회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들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규 전문교육실시(48.0%), 지도교사에 대한 재정지원(22.3%), 전문교사자격증제도 도입(9.2%) 등을 꼽았으며,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법회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3.0%), 어린이불교학습자료 개발보급(25.1%), 지도교사 육성 및 과견(2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도교사의 79.5%가 종단차원의 교육이 실시되면 참가하겠다고 답해 종단차원의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자 기자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다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3/4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j/

백산종합해사
BACK SAN TOTAL MARINE CO.,
대표이사 白 文 鉉

취급품목 : 1)선박기관(내연) 및 냉동기 수리 및 부품
2)각종 유압 WINCH제작 및 수리
3)각종 선박 부품 제작 및 납품
4)무역 및 잡화

본 사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5번지
TEL : 051)413-9600(대)
FAX : 051)413-9602

일본사무소 : 神戶市 中央區 若菜通 5丁目 1-9-168號
TEL : 81-78-230-1323
FAX : 81-78-230-1234

공 장 : 釜山市 影島區 南港洞 2街 24番地
TEL :051)413-1193
FAX : 051)413-2339

일호면직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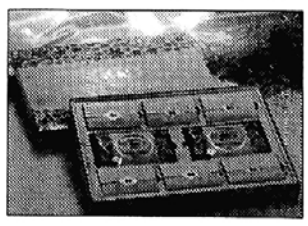
옥양옥, 광목, 삼베, 모시,
각종면직도매, 영가옷, 수의도매

대 표 백철우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4가 국제시장 5공구 B동 下층 1호, 2호
TEL : 051)246-4263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